

보도시점 (온라인) 2026. 7. 6.(월) 10:30  
(지면) 2026. 7. 6.(월) 석간

##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과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음악극 “대동강의 눈물, 평화의 꽃으로 피다” 개최

- 7월 4일 이북5도청, 실향 1세대의 삶과 평화의 메시지 담아
- 평안남도지사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 반복되지 않아야” 강조

이북5도위원회 평안남도과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7월 4일(토) 이북5도청에서 실향민의 아픔과 평화에 대한 갈망을 그린 ‘대동강의 눈물, 평화의 꽃으로 피다’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일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인 우리 사회에 '전쟁 없는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6.25 전쟁 당시 대동강 철교를 건너며 피난길에 생이별해야 했던 실향 1세대 어르신들의 치열했던 삶을 조명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굳건한 뿌리가 되었음을 전했다.

### >> 평양냉면 등 고향의 맛 무료 제공, 문화와 체험 어우러진 축제 마당

전체 행사는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제1부는 이북5도청 광장에서 ‘고향의 맛을 느끼다’와 ‘그리운 고향, 한 그릇에 담긴 마음’을 주제로 문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실향민들에게는 짬은 향수를, 미래 세대에게는 이북 전통문화에 대한 친숙함을 전하기 위해 평양냉면과 만두, 지지미 등 정통 이북식 먹거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무료로 제공했다.

이어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청사 1층과 5층 로비에서 펼쳐지는 제2부는 ‘그때를 회상하다’와 ‘잊지 못할 얼굴, 잊어선 안 될 약속’을 주제로 사진전, VR 체험, DNA 채취, 사진으로 보는 6.25, 고향 찾아주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로 채워졌다.

## >> 역사적 서사 녹여낸 특별 음악극 ‘한많은 대동강’ 무대 장식

행사의 백미인 제3부는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5층 강당에서 ‘대동강 푸른 물 위에 띄우는 평화의 노래’를 부제로 한 특별 음악극 ‘한많은 대동강’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이번 공연의 원작자이며 행사의 기획을 맡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대동강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눈물과 한이 서린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번에 선보이는 음악극을 통해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어르신들의 오랜 한을 위로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준엄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이북5도 총무과	책임자	과 장	권영철 (02-2287-2511)
		담당자	주무관	여재일 (02-2287-2685)

